

광주비엔날레, 역대 최대 '파빌리온 프로젝트' 연다

네덜란드 등 9개국 특별전시 참여
시립미술관·이이남스튜디오 등
기후 문제·소수민족 문화 다뤄
“국가간 문화교류·세계 미술 메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간(4월7일~7월9일)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문화예술 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열린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국가별 전시 제목과 참여작가, 큐레이터 등을 공개했다. 파빌리온은 광주비엔날레가 2018년 도입한 프로젝트로 광주비엔날레 부록 형태의 국가별 특별전시다. 올해로 세번째 진행되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9개국이 참여한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는 네덜란드, 스위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등이 참여하며, 광주지역 협력기관인 광주시립미술관, 이이남 스튜디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동국미술관, 은암미술관, 이강희미술관, 10년후그라운드, 양림미술관, 갤러리 포도나무 등지에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각 국가별 파빌리온은 동시대 화두인 기

후 문제와 자국 전통, 소수민족 문화 등을 아우르면서 본전시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 계(soft and weak like water)'와 상호 작용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미술관 혹은 대안 공간, 사립미술관 등 협력기관의 특성에 맞게 공명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파빌리온은 기후 범죄에 있어 군사 산업 단지의 역할에 주목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부와 기업을 재판에 회부하는 '공판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이탈리아 파빌리온은 물의 은유를 통해 인간중심적이고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며 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공존을 제시한다.

스위스 파빌리온은 스위스와 한국 출신 젊은 사진작가 8명의 사진 작품이 선보여 지는데 이는 양 국작가들의 협력 전시로,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광주비엔날레를 위해 새롭게 구성됐다. 약 50점의 사진 및 비디오, 설치미술을 통해 도시 환경과 인간 인식의 디지털 전환,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예술적 관점을 제공한다.

중국 파빌리온은 중국 문명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대나무를 소재로 해 현대적인 전시 공간을 조성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조각 및 이미지 등으로 시각화한다.

캐나다 파빌리온은 올해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주한 캐나다 대사



캐나다 파빌리온으로 이강희미술관에 전시되는 씨 푸투구(Cee Pootoogook).

광주비엔날레 제공

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전시로, 캐나다 키겐가이트(Kingait) 28명 작가들이 작업한 90점 이상의 드로잉과 조각을 선보인다. 이는 캐나다 이누이트 예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이누이트 예술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파빌리온은 '포스트 아트'라는 용어를 도입한 예술 평론가 예지 루드빈스키(Jerzy Ludwinski)와 연관된 공공 프로그램을 5월 중 10년후그라운드와 양림살롱에서 마련한다. 더불어 본 전시 기

간 동안 양림동의 갤러리 포도나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연대 및 지지를 위해 우크라이나 프리필름스(Freefilms)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랑스 파빌리온은 지난해 열린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을 수상한 지네브 세디라(Zineb Sedira)의 전시가 한국을 위해 특별히 재구성돼 선보인다. 작가는 역사적 해방과 투쟁, 문화적 정체성, 탈식민주의에 기반하여 과거와 현재의 국제적 연대를 조명한다.

이스라엘 파빌리온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과의 관계를 영상, 오브제 및 설치매체 등으로 풀어내며, 미디어로 특화된 전시 공간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에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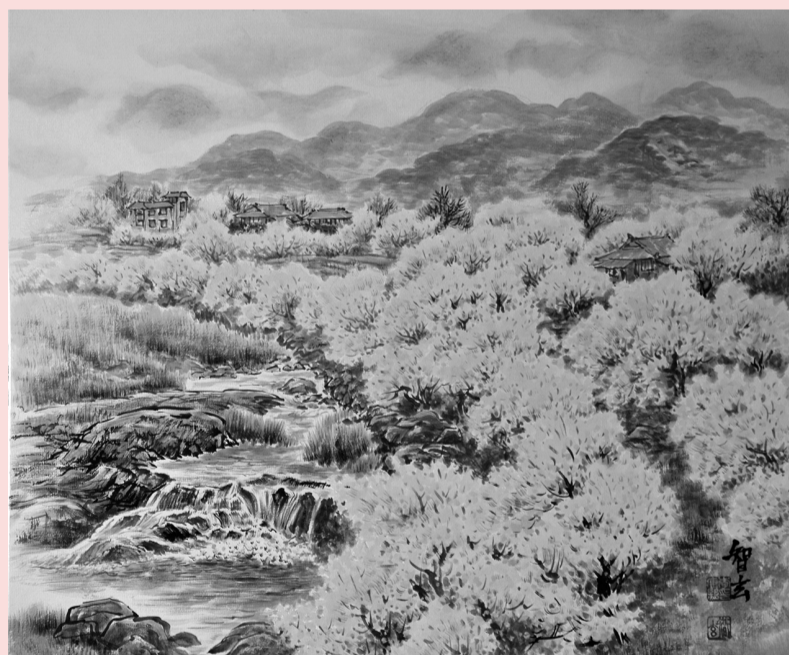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파빌리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우크라이나의 현대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다. 전쟁 중의 상황에 보내는 일종의 지지와 연대의 의미다.

박양우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는 “베니스비엔날레가 각 국가에서 국가관을 운영하면서 자국 미술을 소개하듯,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또한 해외의 우수한 문화예술기관들이 자국 작가와 작품을 선보이며 국가간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광주를 중심으로 세계 미술계가 응집되고 결집됨으로써 광주가 세계 미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다양한 세계 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세계 미술기관의 문화 교류를 위해 2018년 추진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은 2018년 총 3개 기관이, 2021년에는 총 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9개국이 참여해 미술의 도시 광주를 역동하는 동시대 미술 현장으로 엮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이번 개인전에 전시되는 이강희 작품.



이강희 초대전 '한국화로 보는 구례 봄꽃'

내달 3일부터 4월2일까지
The-K 지리산가족호텔서

'구례를 담아내는 화가'로 알려진 한국화가 지현 이강희씨의 초대전이 오는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구례에 있는 The-K 지리산가족호텔 1층 로비에서 열린다.

The-K 지리산가족호텔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구례산수유꽃축제를 기념해 이 작가의 전시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10년 전 고향인 구례 산동으로 귀향한 이 작가는 그

동안 △내 고향의 향기 △아그레구레 △산수유연가 △산수유풍경 △구레이야기 등의 부제로 전시회를 통해 산수유와 구례를 담아낸 작품을 발표해왔다.

이 작가는 구례 산동 삼성마을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에서 수목화를 전공했으며 전국근로자 문화큰잔치 대상과 전국근로자 실기대회 은상 등을 받았다.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 부천사생회, 부천한국화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도선인 기자



여행박람회 '광주관광 트래블마트' 열린다

광주관광재단, 23~24일 개최
지역관광업계 설명회 등 마련

광주관광재단이 지역관광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박람회 '2023 광주관광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23~24일 이틀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등에서 열린다.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원사와 광주관광콘텐츠 운영기업, 예비기업,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석,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에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행사의 핵심은 지역 관광업계와 다양한 분야의 국내 관광스타트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관광시장 동향 및 정보 공유 △협력관계 및 연락처계 구축 △기업간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을 위해 1:1 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첫날인 23일에는 광주 관광 홍보 설명회를 갖고, 참여기업들의 홍보 시간이 진행된다. 재단은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K-POP 콘텐츠, 스포츠 등 볼거리, 즐길거리 뿐만 아니라 떡갈비, 보리밥 등 미식여행까지 광주만의 특색을 가진 관광콘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사업 우수기관 선정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문화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7개 시·도 지역주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문화누리카드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카드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탁월한 사업운영 실적으로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1

만원을 지원하는 문화생활 전용 카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이며, 온·오프라인 전용 가맹점에서 사용은 물론,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우리 동네 가맹점 위치, 잔액조회 등 검색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한편,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관련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ARS(1544-34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해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인터넷 서점 무료배송 금액 인상
최소금액 1만5000·배송비 2500원

책 한 권만 사도 무료 배송해주는 시대가 끝났다. 예스24·교보문고·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이 무료배송 기준 금액을 1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전격 인상하면서다. 배송비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서점가는 배송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스24는 “배송료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물류비,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었으나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결국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료 배송비 기준이 1만5000원으로 인상되면서 독자들은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배송비 인상이 서점들의 눈치싸움 속에 이뤄졌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4일 예스24가 무료배송 기준과 배송비를 올린 뒤 이어 알라딘과 교보문고도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뉴시스